

명절 끝나니 쌓이는 쓰레기...선물 과대포장 규제 시급

아파트·주택가 분리 수거장마다 수m 산더미처럼 쌓여 매년 점검 한다는 과대포장 개선 안돼 명절마다 몸살 대부분 플라스틱·이중 포장·재활용 안돼 처리 골머리

광주·전남 공동주택과 주택가가 명절 선물 과대 포장 쓰레기로 몸살을 앓고 있다. 과일·육류 등 명절 선물을 포장했던 완충재와 각종 포장재의 플라스틱과 비닐, 스티로폼까지 재활용품이 넘쳐나는 것이다. 일각에서는 지자체의 규제와 단속이 느슨해 때마다 되풀이되는 과대포장을 제대로 막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의 목소리도 나온다. 12일 오전 광주시 북구 오치동의 한 아파트 쓰레기 분리수거장에는 과일, 식료품, 화장품 상자 등 쓰레기가 3m에 가까운 높이로 쌓여 있었다. 쓰레기 대부분이 택배 상자부터 과일 상자, 충전재 및 포장재, 비닐포장 등 명절 선물세트에서 발생한 것들인데, 수거장이 가득 차 노상에 쓰레기를 모아두면서 처지 곤란 수준으로 쌓인 것이다. 비슷한 시각 서구 치평동의 한 아파트에는 각종 상자와 플라스틱 쓰레기 포대가 쓰레기 3m 남짓 높이의 수거장 천장까지 차올라 있었고, 금호동의 다른 아파트 역시 스티로폼 상자와 플라스틱 쓰레기가 수거장 내에 가득 차 더 쌓아 올릴 공간이 없을 정도였다. 아파트 경비원들은 "명절만 되면 평소보다 쓰레기가 3배는 쌓인다. 과일상자와 완충재, 충전재 등이 대부분인데 분리수거도 제대로 안 하고 마구 버려 끝자"라고 입을 모았다. 명절 선물세트 판매처에서도 과대 포장이 성행하

고 있었다. 명절에 앞서 지난 6일 광주일보 취재진이 방문한 광주시 북구의 한 대형마트에서는 각종 식품과 생활용품 등 명절 선물 세트 대부분이 플라스틱, 비닐로 이중 포장돼 판매되고 있었다. 킹스베리, 사인머스켓 등 고가의 과일은 비닐·스티로폼 그물망·박스 등 3-4중으로 포장됐으며, 버섯·견과류 등은 비닐로 날개 포장한 뒤 플라스틱 케이스, 종이상자 등으로 3중 포장돼 있었다. 현장에서 선물 세트를 보자기로 한 겹 더 포장해주는 서비스도 여전했다. 특히 지역 백화점과 대형마트, 전통시장 등에서 판매하는 명절 선물세트의 과대포장이 개선되지 않고 있다. 광주의 한 백화점에서는 햄·고기 등 육류품을 한 덩어리씩 개별 포장한 뒤 플라스틱 받침에 얹고, 종이 상자에 담은 뒤 보자기로 감싸는 등 4중 포장을 해 주고 있었다. 한과 세트는 더 나아가 호두, 다식 등을 한 개씩 날개 포장하고, 가로 15cm, 세로 10cm 가량의 플라스틱 용기 하나에 동전 크기의 약과 6개를 하나하나 늘어놓는 경우도 있었다. 시민 김인혜(여·29)씨는 "올해 받은 명절 선물들을 정리하고 보니 쓰레기가 산더미처럼 쌓였다. 플라스틱 받침대와 종이 상자, 충전재 등이 너무 많이 나온다"고 한숨을 내쉬었다. 류모(여·40)씨도 "명절만 되면 가격도 비싸지고



12일 광주시 북구 오치동의 한 아파트 쓰레기 분리수거장에 명절 선물 세트 등에서 발생한 쓰레기가 산더미처럼 쌓여 있다.

포장이 과대해진다"며 "포장재가 하도 많아 분리수거도 안 되고, 재활용도 안 돼 그대로 매립지에 들어간다는데, 경각심이 없는 것 같다. 딱 봐도 이중

삼중으로 포장된 제품이 어떻게 합법이나"고 혀를 찼다. 광주시는 매년 명절마다 광주시 5개 자치구, 광

주환경공단 등과 합동으로 명절 선물 과대포장 점검을 하고 있으나 실효성이 없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현행 과대포장에 대한 제한 기준이 지나치게 여유로워 점검을 해도 적발 사례가 거의 없다는 것이다. 관련법에 따르면 의류를 제외한 모든 제품은 포장 횟수를 2회 이내로 하게 돼 있으며, 포장 공간의 비율은 제품에 따라 10-35% 이하를 유지하도록 정해져 있다. 실제로는 상품을 택배 상자나 종이상자, 보자기 등으로 감싸면서 한번에 2-3가지의 포장재 쓰레기 추가로 나올 수밖에 없는 실정이나, 현행법에는 이점이 반영돼 있지 않다. 올해 광주시는 4개 자치구, 총 10건의 품목에 대해 포장검사 명령을 내렸다. 포장검사명령 건수는 지난 2022년 27건, 2023년 10건 등 올해까지 47건에 달하나, 이중 위반 사실을 적발해 과태료를 매긴 사례는 단 1건에 불과했다. 광주시 관계자는 "지속적으로 과대 포장 관련 홍보를 해왔기 때문에 과거에 비해 많이 줄어든 편이다"면서도 "선물 포장재 등 폐기물이 발생하는 건 차차하고 최소한 분리수거라도 제대로 이뤄질 수 있도록 조치할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정희 친환경자원순환센터장은 "플라스틱, 일회용품 줄이기에 국제사회가 동참하고 있는데, 우리나라 현행법은 규제를 느슨하게 풀어둔 채 기업의 선의에만 기대고 있어 문제가 반복되고 있다"며 "과대포장을 줄이고 친환경적인 '순환디자인' 등을 적용하려면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규제를 강화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지적했다. /글·사진=유연재 기자 yjyou@kwangju.co.kr

보석허가 청탁 명목 거액 수수 변호사들 실행

브로커도 징역형·벌금 추징

변호사가 사건 담당 재판장에게 재판 전에 전화를 걸어 '사건을 잘 검토해 달라'는 취지로 부탁한 것은 정상적인 변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광주지법 형사5단독(부장판사 김효진)은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대전지역 A변호사와 지역 B변호사에게 각각 징역 1년과 8월을 선고하고 각각 1억 2000만원과 8000만원을 추징했다. 이들 변호사에게 청탁하고 알선한 브로커 C씨에게는 같은 혐의를 적용해 징역 1년에 1억 4900

만원의 추징금을 선고했다. 이들 변호사는 재개발사업 입찰 방해로 구속 기소된 건설업자에게 '보석 허가를 받게 해주겠다'며 2억 2000여만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변호사들은 혐의를 부인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B변호사가 당시 건설업자의 재판을 담당하던 현 국민의힘 사무총장 장동혁(충남 보령시 서천군)의원과 친분이 있다는 점을 이용해 청탁을 받은 것으로 봤다. 재판에서 증인으로 나선 장의원은 "B변호사로부터 전화와 '재개발사업 관련 사건을 A변호사

가 맡게 됐다. 피고인이 경찰 수사에서 혐의를 부인하다가 혐의를 인정하고, 합의를 하는 등 원만하게 해결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억울한 부분이 있으니 해당 사건 기록을 잘 살펴봐달라'고 말했다. 재판부는 "B변호사가 담당 재판장에게 전화를 해 '사건을 잘 봐달라'고 전화한 것은 형사사건을 수임한 변호사의 정상적인 활동으로 보기 어렵고, 친분관계에만 기대어 부당하게 유리한 결과를 얻고자 하는 것으로 볼수 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A·B변호사는 형사 사건의 담당 재판장과의 친분 관계를 내세워 보석의 대가로 거액의 돈을 받았다"면서 "A·B변호사의 행위는 형사사법의 공정성에 대한 신뢰를 훼손하는 행위로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정병호 기자 jusbh@

밭일·갯벌조업하다...설 연휴 잇단 사망사고

설 명절 연휴기간임에도 바다와 밭으로 일하러 나온 주민들이 목숨을 잃는 사고가 잇따랐다. 12일 강진경찰과 강진소방에 따르면 전날 오후 5시 20분께 강진군 대구면의 밭에서 A(76)씨가

경운기에 깔려 숨졌다. 경찰은 A씨가 경사면 밭에서 운전하던 경운기가 넘어지면서 옷가지가 엔진 구동 벨트에 끼여 변을 당한 것으로 추정 중이다. /유연재 기자 yjyou@kwangju.co.kr

같은 날 오후 3시께에는 고흥군 포두면 해상에서 갯벌 조업을 하던 B(69)씨가 숨진 채 발견됐다. 여수해경은 B씨가 이날 새벽 3시께 홀로 갯벌을 하다 화를 입은 것으로 추정 중이다. 경찰과 해경은 A·B씨 모두 범죄 혐의점이 없다고 보고 구체적인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유연재 기자 yjyou@kwangju.co.kr

광주·전남 설 연휴 112신고·교통사고 감소

중요범죄 신고 건수는 소폭 증가

올해 설 연휴 기간(9일~12일) 광주에서는절도, 성폭력 등 중요범죄 신고 건수가 전년보다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광주·전남 경찰청, 광주·전남자치경찰위원회는 이번 설은 연휴 기간 112신고 등 치안 수요가 지난해 설 연휴 대비 소폭으로 감소했고, 특별방범활동으로 큰 사건·사고 없이 평온한 치안상태를 유지했다고 12일 밝혔다. 광주에서는 올해 설 연휴 4일간 일평균 112 신고는 모두 1204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0.6% 감소했다. 가정폭력 신고도 지난해보다 8.7% 줄어 39건이 접수됐다. 다만 중요범죄(절도, 성폭력 등) 신고는 지난해보다 10.5% 늘어난 하루 평균 39건으로 집계됐다. 전남에서 올해 설연휴 112신고는 지난해 설 명절 대비 일평균 26.2% 감소했고, 가정폭력·아동 학대 신고는 지난해 대비 각각 일평균 27.3%, 48% 줄었다. 광주지역 설 연휴 교통사고는 하루 평균 6.3건

발생했다. 지난해 설 연휴와 비교해 45.2% 감소한 수치다. 교통사고 부상자도 하루 평균 7명이 발생해 지난해보다 61.1% 줄었다. 전남에서도 교통사고는 일 평균 54.9%, 교통사고 사망자는 50%, 부상자는 56.5% 감소했다. 한편 12일 낮 12시 기준으로 연휴기간 광주승정역과 광천터미널, 공항이나 자가용을 이용해 99만여 명의 귀성객이 광주를 방문했고, 96만여 명의 귀경객이 광주를 빠져나간 것으로 집계됐다. 이번 설 명절에는 지난해 추석 대비 60만여명이 감소한 195만여명이 광주를 오갔다. 또 설 연휴 나흘동안 15만여명의 성묘객이 시립묘지(망월묘지, 영락공원)를 찾았다. 특히 10일 설 당일과 다음날인 11일에 12만8000여명의 성묘객이 몰렸다. 이번 설 연휴에는 12일 낮 12시 기준 광주에서 ▲화재 25건 ▲교통사고 47건 ▲구조·구급 647건이 발생했으나 대부분 경미한 사고였던 것으로 파악됐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학폭 피해자에 따스한 바람이 닿기를

“ 지금도 어딘가에서 언제 죽을까, 어떻게 죽을까, '나 죽어도 우리 가족들 행복해야 할 텐데'라며 죽음을 생각하며 걱정과 고민을 하는 우리의 어린 자녀들을 어떻게든 돕고 싶습니다. 저에게는 그 부분이 가장 간절했어요. ”

이호동 교사가 학창시절 겪은 피해 경험 등을 담아 피해자와 가족에 건네는 위로

저기 환한 달이 되려나/ 혼자 떠난 너의 초행길에/ 나는 너의 달이 되려나
어디로 가느냐/ 갈 길은 어느나/ 가다가 길 잃거든/ 나를 보고 가거라/ 나를 안고 가거라.

- 이호동 <달이 되려나>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학교폭력예방 7중 시스템 “화제”

이호동 작가의 글, 부인 박소영 교사의 삽화 감동과 향기, 따스함을 전하다

이호동(오른쪽)·박소영 부부 교사 ▲

<따스한 바람이 너에게 닿기를>
저 자 이호동 | 삽 화 박소영 | 출판사 가현정북스